

짧은 시간 가볍게 챙기는 마지막 한 판

현대 문법

음소부터 문장까지, 내신부터 수능까지 단 한 권으로 완벽 대비!
한 권보다 가벼운 한 판으로 쉽고 빠르게 학습하세요.

수능

내신



양손은 가볍게 내용은 무겁게!

강사가 알려주지 못하는 내용까지 긁어주는 최소한의 과학·기술 배경 지식

최근 6년간 EBS 교재와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등장한 모든 소재를 한곳에 모아,
수능 대비를 위한 과학·기술 배경 지식을 쌓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머리말

문법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빈출 소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문학이나 독서처럼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 영역과 달리, 문법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자주 반복되는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마지막 한 판은 바로 그 기시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만든 교재입니다. 문법의 범위는 넓지만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이 교재는 그 핵심적인 문법 소재들을 한 권에 담아 수험생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책의 특·장점

- ① 수능과 내신은 출제 방식이나 난이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만, 문법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두 시험 모두 한국어 문법이라는 동일한 규칙을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하나를 공부하면 다른 하나에도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한 권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② 바쁜 수험생들이 모든 문제를 분석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주 출제된 핵심 문법 소재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짧은 시간 안에 문법을 완벽히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③ 마지막 한 판은 방대한 문법의 세계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교재와 함께라면, 자주 출제되는 문법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수능과 내신 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용 안내서

- 이 책은 '한 판'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모두 넣을 수 없었습니다.
- 일부 구분 기준의 경우 (연결 어미의 종류, 비통사적 합성어의 분류) 교과서마다 구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전체 내용을 담되 암기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적자**로 강조하여 쉽게 눈에 띄도록 구성했습니다.
보충 설명이나 예시는 **청자**로 표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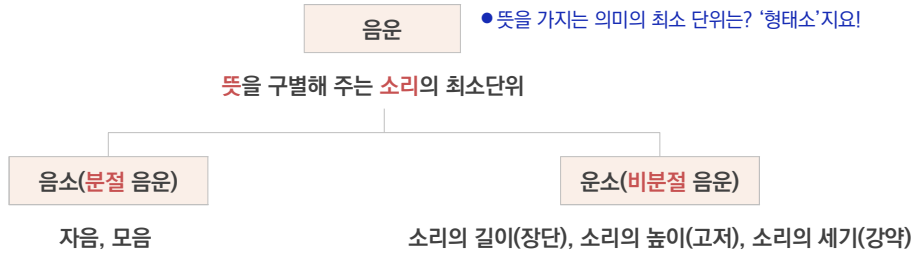
빈출가 표시된 것은 내신, 모의고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요 시험 포인트입니다.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과 빈출 문제는 QnA 형식으로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차례

마지막 한 판	1	음운	5쪽
마지막 한 판	2	음운의 변동 ❶ - 한눈에 보기	6쪽
마지막 한 판	3	음운의 변동 ❷ - 자세히 보기	7쪽
마지막 한 판	4	음운의 변동 ❸ - 빈출 문제 모아 보기	8쪽
마지막 한 판	5	단어 ❶ - 한눈에 보기	9쪽
마지막 한 판	6	단어 ❷ - 어간 어미, 용언의 활용	10쪽
마지막 한 판	7	단어 ❸ - 빈출 문제 모아 보기	11쪽
마지막 한 판	8	단어 ❹ - 빈출 문제 모아 보기	12쪽
마지막 한 판	9	단어 ❺ - 단어 형성	13쪽
마지막 한 판	10	단어 ❻ - 새말/단어 의미 유형	14쪽
마지막 한 판	11	문장 ❶ - 문장 성분	15쪽
마지막 한 판	12	문장 ❷ - 문장 구조	16쪽
마지막 한 판	13	문법 요소 ❶ - 문장 종결 표현, 높임 표현	17쪽
마지막 한 판	14	문법 요소 ❷ - 시간 표현, 동작상, 사동/피동, 주동/사동, 부정 표현	18쪽
마지막 한 판	15	문법 요소 ❸ - 빈출 문제 모아 보기	19쪽
마지막 한 판	16	문법 요소 ❹ - 빈출 문제 모아 보기	20쪽
마지막 한 판	17	문법 요소 ❺ - 빈출 문제 모아 보기	21쪽

■ 음운의 개념



개념 플러스

- 최소 대립쌍
발 - 불, 불 - 물과 같이 하나의 음운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는 한 쌍의 단어
- 변이음
동일 음운이면서 서로 다른 음성으로 실현된 것
예 'ㄱ'은 '가'(어두)에서 무성음[k], '아가'(유성음 사이)에서는 무성음[g], '악'(음절 종성)에서는 단음소리[k']로 실현됨.
- 음성과 음향
 - 음성: 인간의 언어를 이루는 소리(= 말소리)
 - 음향: 음성을 제외한 소리 예 자연의 소리

■ 자음

발음할 때 방해가 있는 소리

■ 자음 체계표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입술소리 (순음)	혀끝소리 (치조음)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목청소리 (후음)
예사소리	ㅍ	ㅌ		ㄱ	
파열음	ㅂ	ㅅ		ㅇ	
거센소리	ㅃ	ㅆ		ㅋ	
안울림 소리 (무성음)	예사소리		ㅈ		
	파찰음		ㅊ		
	거센소리		ㅉ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유성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모음

발음할 때 방해가 없는 소리

■ 단모음

발음할 때 입 모양이 바뀌지 않는 모음

■ 단모음 체계표

혀의 높이	혀의 앞뒤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 모양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꺄	ㅡ	ㅓ
중모음		ㅕ	ㅛ	ㅗ	ㅜ
저모음		ㅗ		ㅓ	

■ 이중 모음

발음할 때 입 모양이 바뀌는 모음

‘j’계 이중 모음: ㅟ, ㅠ, ㅝ, ㅞ, ㅟ, ㅠ, ㅡ
‘w’계 이중 모음: ㅓ, ㅕ, ㅖ, ㅗ

● ‘-’는 하향 이중 모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표준 발음법에서는 단모음 ‘-’와 반모음 ‘l[j]’의 결합으로 보고 있어요.

■ 음운 변동의 유형



교체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받침)에서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음운으로만 발음되는 현상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교체되는 현상
	유음화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교체되는 현상
	된소리되기	‘ㄱ, ㄷ, ㅂ, ㅅ, ㅈ’와 같은 예사소리(평음)가 특정한 환경에서 ‘ㄲ, ㄸ, ㅃ, ㅆ, ㅉ’와 같이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 [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ㄷ, ㅌ’이 구개음인 ‘ㄸ, ㅊ’으로 교체되는 현상
	ㅣ모음 역행 동화	‘ㅣ’모음이 앞의 모음 ‘ㅏ, ㅑ, ㅓ, ㅕ’에 영향을 주어 ‘ㅗ, ㅛ, ㅜ, ㅠ’로 변하게 하는 현상
	두음 법칙	한자어에서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탈락	자음군 단순화	받침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올 때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자음 탈락	특정 환경에서 ‘ㄹ’이나 ‘ㅎ’이 탈락하는 현상
	모음 탈락	특정 환경에서 ‘ㅡ’나 ‘ㅏ, ㅑ’가 탈락하는 현상
첨가	ㄴ첨가	두 형태소 또는 단어가 결합하여 파생어나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 [j]’로 시작하면 그 사이에 ‘ㄴ’이 덧나는 현상
	사잇소리	합성어를 이룰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거나 ‘ㄴ’ 소리 또는 ‘ㄴㄴ’ 소리가 나는 현상
축약	자음 축약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쳐져 거센소리 ‘ㅋ, ㆁ, ㅍ, ㆅ’으로 바뀌는 현상
	모음 축약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 하나의 이중 모음으로 줄어드는 현상

교체		탈락				
음절의 끝소리 법칙	음절의 끝(받침)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음운만 발음	<p>■ 자음군 단순화</p> <p>- 앞 자음 탈락: ㅃ → ㅍ, ㄹㄷ → ㄱ, ㅃ → ㅍ ●이렇게 외워 보세요! '로마', '레고', '래퍼'</p> <p>- 뒤 자음 탈락: 그 외 자음군</p> <p>[빈출] '래'와 '러'는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p> <table border="1"> <tr> <td>ㄹ</td> <td>어간 말음 ㄹ은 어미 ㄱ앞에서 ㄱ이 탈락함. 예) 읽고[일꼬], 읽지[익찌], 맑고[말꼬], 닭과[닭꽂]</td> </tr> <tr> <td>래</td> <td>• '뵤-' 뒤에 자음이 올 경우 '래'이 탈락함. 예) 뵤다[뵤따], 뵤지[뵤찌] • '뵤-'은 다음의 경우 [넙]으로 발음함. 예) 뵤족하다[넙쭈카다], 뵤통글다[넙통글다], 뵤적하다[넙쩌카다]</td> </tr> </table>	ㄹ	어간 말음 ㄹ은 어미 ㄱ앞에서 ㄱ이 탈락함. 예) 읽고[일꼬], 읽지[익찌], 맑고[말꼬], 닭과[닭꽂]	래	• '뵤-' 뒤에 자음이 올 경우 '래'이 탈락함. 예) 뵤다[뵤따], 뵤지[뵤찌] • '뵤-'은 다음의 경우 [넙]으로 발음함. 예) 뵤족하다[넙쭈카다], 뵤통글다[넙통글다], 뵤적하다[넙쩌카다]
ㄹ	어간 말음 ㄹ은 어미 ㄱ앞에서 ㄱ이 탈락함. 예) 읽고[일꼬], 읽지[익찌], 맑고[말꼬], 닭과[닭꽂]					
래	• '뵤-' 뒤에 자음이 올 경우 '래'이 탈락함. 예) 뵤다[뵤따], 뵤지[뵤찌] • '뵤-'은 다음의 경우 [넙]으로 발음함. 예) 뵤족하다[넙쭈카다], 뵤통글다[넙통글다], 뵤적하다[넙쩌카다]					
비음화	<p>● 조음 위치는 그대로, 조음 방법만 변하는 음운 변동!</p> <p>① ㄱ, ㄷ, ㅂ + ㅁ, ㄴ → ㅇ, ㄴ, ㅁ (불완전/역행동화) 예) 국물[궁뵤]</p> <p>② ㅇ, ㅁ + ㄹ → ㄴ (불완전/순행동화) 예) 종로[중노]</p> <p>③ ㄱ, ㅂ + ㄹ → ㅇ, ㅁ + ㄴ (불완전/상호동화) 예) 백로[뱅노]</p>	<p>■ 자음 탈락</p> <table border="1"> <tr> <td>'ㄹ' 탈락</td> <td>단어 형성/ 용언 활용 시에 ㄴ, ㄷ, ㅂ, ㅅ 앞 'ㄹ' 탈락 예) 바늘 + 질 → 바느질, 울 + 는 → 우는</td> </tr> <tr> <td>'ㅎ' 탈락</td> <td>어간 ㅎ 뒤에 모음이 올 때 ㅎ 탈락 예)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td> </tr> </table>	'ㄹ' 탈락	단어 형성/ 용언 활용 시에 ㄴ, ㄷ, ㅂ, ㅅ 앞 'ㄹ' 탈락 예) 바늘 + 질 → 바느질, 울 + 는 → 우는	'ㅎ' 탈락	어간 ㅎ 뒤에 모음이 올 때 ㅎ 탈락 예)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ㄹ' 탈락	단어 형성/ 용언 활용 시에 ㄴ, ㄷ, ㅂ, ㅅ 앞 'ㄹ' 탈락 예) 바늘 + 질 → 바느질, 울 + 는 → 우는					
'ㅎ' 탈락	어간 ㅎ 뒤에 모음이 올 때 ㅎ 탈락 예)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유음화	<p>① ㄴ + ㄹ → ㄹ + ㄹ (완전/역행동화) 예) 신라[실라]</p> <p>② ㄹ + ㄴ → ㄹ + ㄹ (완전/순행동화) 예) 칼날[칼랄]</p>	<p>■ 모음 탈락</p> <table border="1"> <tr> <td>-탈락</td> <td>'ㅡ' 뒤에 'ㅏ/ㅑ'가 올 때 'ㅡ'가 탈락 예) 꼬 + 어서[꺼서], 담그 + 아서[담가서]</td> </tr> <tr> <td>ㅏ/ㅑ(동음)탈락</td> <td>'ㅏ/ㅑ'와 'ㅏ/ㅑ'가 만날 때 동음 탈락 예) 가 + 아서[가서], 서 + 어[서]</td> </tr> </table>	-탈락	'ㅡ' 뒤에 'ㅏ/ㅑ'가 올 때 'ㅡ'가 탈락 예) 꼬 + 어서[꺼서], 담그 + 아서[담가서]	ㅏ/ㅑ(동음)탈락	'ㅏ/ㅑ'와 'ㅏ/ㅑ'가 만날 때 동음 탈락 예) 가 + 아서[가서], 서 + 어[서]
-탈락	'ㅡ' 뒤에 'ㅏ/ㅑ'가 올 때 'ㅡ'가 탈락 예) 꼬 + 어서[꺼서], 담그 + 아서[담가서]					
ㅏ/ㅑ(동음)탈락	'ㅏ/ㅑ'와 'ㅏ/ㅑ'가 만날 때 동음 탈락 예) 가 + 아서[가서], 서 + 어[서]					
된소리되기	<p>① ㄱ, ㄷ, ㅂ + ㄱ, ㄷ, ㅂ, ㅅ, ㅈ → 된소리 (완전/순행동화) 예) 국밥[국뵤]</p> <p>② 어간 받침 ㄴ, ㅁ + 어미 ㄱ, ㄷ, ㅂ, ㅅ, ㅈ → 된소리 (완전/순행동화) 예) 감고[감꼬]</p> <p>③ 한자어 ㄹ + ㄷ, ㅂ, ㅅ, ㅈ → 된소리 (완전/순행동화) 예) 갈등[갈뵤]</p> <p>④ 관형사형 -(으)ㄹ + ㄱ, ㄷ, ㅂ, ㅅ, ㅈ → 된소리 (완전/순행동화) 예) 할 것을[할꺼슬] (순행동화)</p>					
구개음화	ㄷ, ㅌ + 반모음 'ㅣ[j]'(+ 형식 형태소) → ㅈ, ㅊ (역행동화) 예) 굳이[구지]					
모음 역행동화	일부만 표준어 예) 남비 → 냄비, 멧쟁이 → 멋쟁이)					
두음 법칙	<p>① 'ㄹ', 'ㄴ' 탈락 예) 량심 → 양심, 니불 → 이불</p> <p>② 'ㄹ → ㄴ' 교체 예) 락원 → 낙원</p>					
첨가		축약				
'ㄴ' 첨가	<p>두 형태소 또는 단어가 결합하여 파생어나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면 그 사이에 'ㄴ'이 덧나는 현상</p> <p>예) 맨입[맨닙] 늦여름[느녀름]</p>	<p>■ 자음 축약</p>				
사잇소리	<p>● 사잇소리 현상은 합성어(한자어 + 한자어 제외)에서 발생해요.</p> <p>① 뒷말이 된소리로 교체된 경우 예) 초 + 불 → 초뵤[초뵤 / 초뵤]</p> <p>② 뒷말이 ㄴ, ㅁ으로 시작할 때 ㄴ첨가된 경우 예) 이 + 뵤 → 잇뵤[인뵤]</p> <p>③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ㄴ첨가된 경우 예) 집 + 일 → [집닐] → [짐닐]</p> <p>[빈출] 사잇소리와 사이시옷: 사잇소리는 발음의 문제, 사이시옷은 표기의 문제예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사이시옷이 들어갈 빈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사이시옷 표기합니다.</p>	<p>■ 모음 축약</p> <p>- 보 + 아서 [뵤서], 쓰 + 이 + 어서 [싹어서 / 쓰어서]</p> <p>- 단모음 + 단모음 → 이중 모음</p>				



NO.	질문						
001	<p>‘연음’은 음운 변동 현상에 해당하나요?</p> <p>[답변]</p> <p>연음은 음절 경계가 변한 것일 뿐, 음운의 형태나 개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어의 음운 변동을 분석할 때, 연음을 음운 변동으로 파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p> <p>예) ‘웃이’가 [오시]로 발음되는 것</p>						
002	<p>감기[감기], 감고[감꼬], 감기대[감기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p> <p>[답변]</p> <p>감기[감기]의 경우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감기대[감기다]의 경우 어간 받침 ㄱ뒤에 접미사인 ㄱ이 결합하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p>						
003	<p>표기에 반영되는 음운 변동에는 무엇이 있나요?</p> <p>[답변]</p> <p>표기에 반영되는 음운 변동에는 ‘두음법칙’, ‘ㅣ모음 역행동화’, ‘ㄹ탈락’, ‘모음 탈락’, ‘사잇소리(일부)’, ‘모음 축약’이 있습니다.</p>						
004	<p>‘밭, 밭이, 밭을, 밭이랑, 밭 안’에 일어난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 알려 주세요.</p> <p>[답변]</p> <p>① 밭[받] ⇨ 음절의 끝소리, ② 밭이[바치] ⇨ 구개음화, ③ 밭을[바틀] ⇨ 연음, ④ 밭이랑[밭이랑 → 반이랑 → 반이랑] ⇨ ㄴ첨가, 비음화(후행 실질 형태소 → 구개음화 X), ⑤ 밭 안[바단] ⇨ 음절의 끝소리 후 연음</p>						
005	<p>두음법칙은 교체 현상에 해당하나요? 탈락 현상에 해당하나요?</p> <p>[답변]</p> <p>두음법칙은 한자어 첫음(두음)에 ㄴ, ㄹ이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으로, 교체와 탈락 현상이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인 → 노인’은 ‘ㄹ’이 ‘ㄴ’로 교체된 것입니다. 반면 ‘녀성 → 여성’은 ‘ㄴ’이 탈락한 경우입니다.</p>						
006	<p>한자어로만 구성된 단어에는 사이시옷을 쓸 수 없나요?</p> <p>[답변]</p> <p>한자어로만 구성된 단어에는 사이시옷을 쓸 수 없지만 다음 여섯 단어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인정하고 있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60 1289 1995 1331"> <tr> <td>곳간(庫間)</td> <td>셋방(貰房)</td> <td>숫자(數字)</td> <td>차간(車間)</td> <td>뒷간(退間)</td> <td>횃수(回數)</td> </tr> </table>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횃수(回數)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횃수(回數)		